

국어학 연구의 성격과 태도에 대한 반성

임용기
(연세대학교)

국제언어인문학회의 2003년 연구발표회의 주제는 “한국에서의 언어연구, 그 현주소를 묻는다”이었다. 주제를 이와 같이 정한 까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서구 이론 중심의 언어 연구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국어학, 언어학, 서양철학, 동양철학, 동양사상 등의 분야에서 반성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 언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데 있었다고 한다. 매우 의도적이면서도 의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이 학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논의하고 넘어 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였다. 토론자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이 글은 고려대 정광 교수의 국제언어인문학회 2003년 연구발표회의 국어학 분야 주제 발표 논문인 “국어학의 언어학적 방법”에 대한 토론에 근거한 것이다. 원래 토론 원고로 작성된 것인데,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한 편의 논문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의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뒤, 그 가운데서 발표자와 견해를 달리 하는 한두 부분에 대하여,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토론자의 국어학 연구의 기본 태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간략하게 밝혀보려고 한다. 그러나 정광 교수의 국어학 연구에 대한 기본 태도는 근본적인 면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Keywords] Language study in Korea, attitude toward language study, Korean Script,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1. 국어학의 언어학적 연구 방법 및 태도에 대한 반성

1.1. 국어학 연구사의 서술 태도와 국어학의 성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국어학은, 그 연구사의 서술 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곧 ‘넓은’ 의미의 국어학, ‘좁은’ 의미의 국어학, ‘전통적인’ 국어학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넓은’, ‘좁은’, ‘전통적인’ 따위의 꾸밈말을 쓴 까닭은 국어학 연구가 단순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국어학 연구의 성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까지 다 드러내려고 한 데 있다. 이와 같이 국어학 연구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또는 그 당시의 연구 방법과 태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국어학 연구의 성격과 의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국어학은 세종 25년(1443) 훈민정음의 창제와 더불어 국어 연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미 우리말 소리와 한자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방법이 매우 과학적이었던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어학은 19세기 말 서양의 전통문법을 받아들여, 국어 연구를 시작한 이후의 국어 연구를 진정한 의미의 국어학으로 보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국어학을 서양 언어학의 테두리 안에서 파악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국어학은 삼국 시대 곧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우리말과 중국말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고유명사 표기, 이두, 구결, 향찰 등의 차자 표기법을 만들어 쓰기 시작한 때로부터 국어 연구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발표자는 이 가운데 넓은 의미의 국어학을 진정한 의미의 국어학으로 이해하고 있다. 토론자 또한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1.2. 언어 연구에서 연구사에 대한 이해는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언어 연구에서 그 연구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대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반성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연구사 이해의 필요성을 살피고 있다. 곧 인류의 모든 발명은 앞 시기의 연구가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뒷 시기의 언어 연구 방법이나 태도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 시기의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 살피고 있다. 곧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몽고의 파스파자 창제와의 관계, 오그덴과 리차즈(1923)의 '기호의 삼각 이론'과 중세 사변 문법학과의 언어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의 관계, 촘스키의 생성문법과 중세 뵈러-뢰알학과의 언어 연구 방법과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훈민정음의 창제 이론, 기호의 삼각 이론, 생성문법 이론 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 국어 연구에서 서양 언어학의 연구 방법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발표자는 넓은 의미의 국어학의 출발점이 되는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을 현대 서양의 음운 이론을 가지고 조명한 뒤, 당시의 음절 구조에 대한 계층적 이해, 중성의 대립관계 파악, 초성과 중성의 자질 분석, 성조의 파악 등에 관한 방법들은, 오늘날의 구조음운론 및 생성음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과학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음을 보이고, 나아가 그것들의 과학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올 때마다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앞선이들의 과학적인 국어 연구 업적을, 다만 서양의 언어학 이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어학 연구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1.4. 바람직한 언어 연구의 방법 및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날 국어 연구 태도 가운데는, 앞서서도 잠깐 살펴보았듯이, 국어학을 서양의 언어 연구 방법을 받아들인 이후의 국어 연구만으로 한정하려는 좁은 의미의 국어학을 지향하거나, 혹은 서양 언어학의 범주에 드는 것만을 과학적인 국어 연구로 보려는 경향이 꽤 있다. 그러나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의 언어 연구 방법이나 이론에만 의존하는 편향적인 태도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양의 언어 이론을 수용하더라도, 특정 언어학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태도 또한 지양해야 한다.

2. 국어학의 언어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발표자의 국어학의 언어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주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나 있는 성운학 이론에 대한 검토에서 비롯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표자는 해례본에 나타나 있는 ‘중성부용초성’과 ‘팔중성기죽용’에 대한 음운론적인 이해와 중성의 대립관계에 대한 파악 방법 등을 현대 음운론의 조명을 통하여 재평가함으로써, 앞으로 국어학 연구가 지양해야 할 방법 및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그 가운데 ‘중성부용초성’과 ‘팔중성기죽용’의 관계 및 그것에 대한 현대 음운론적인 해석과 관련한 두어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이 문제들에 대한 발표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 (1) 예의를 만든 세종은 초성=중성으로 이들이 자음이고, 중성은 모음으로 이해하였다. 『훈민정음』의 해례를 집필한 사람들은 초성과 중성이 동일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이들을 음절 구조상에서 계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예의에서는 ‘중성부용초성’으로 초성=중성으로 이해하였지만, 해례 중성해에서는 ‘팔중성기죽용’이라 하여, 중성의 위치에서는 8개의 자음만 음가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중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초성≠중성으로 이해하였다.

곧 ‘중성부용초성’이란 말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문(이 부분을 발표자는 ‘예의’라 일컬고 있음)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초성과 중성이 다 같이 ‘닿소리’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며, 또 ‘팔중성가족용’이란 말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성해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초성과 중성이 서로 다른 소리이며, 중성의 위치에서는 여덟 개의 ‘닿소리’만이 그 소리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성부용초성’은 세종의 견해이고, ‘팔중성가족용’은 집현전 학자들의 견해라는 것이다.

그리고 ‘초성=중성’이라는 관계 인식은, 초·중성이 중성과 함께 모두 그보다 상위 단위인 ‘자음(字音)’ 곧 음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계층에 놓이는 것으로 이해한 결과이고, ‘초성≠중성’이라는 관계 인식은, 초·중성이 다 같은 ‘닿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초성은 음절의 ‘첫소리’이고 중성은 음절의 ‘끝소리’이며, 따라서 초성은 ‘자운(字韻)’과 함께 자음 곧 음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운과 같은 계층에 놓이지만, 중성은 중성과 함께 자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초성보다는 한 계층이 낮은 층위에 중성과 나란히 놓이는 것으로 이해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발표자는 이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곧 ‘중성부용초성’에서의 초·중성의 동질성 인식은 ‘단선적인’ 음운 인식의 결과이고, ‘팔중성가족용’에서의 중성 인식은 음절의 ‘첫소리’(onset)와 음절의 ‘끝소리’(coda)를 구별하여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단선적인’ 음운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곧 첫째는 ‘중성부용초성’과 ‘팔중성가족용’의 음운론적 인식에 대한 해석 및 그 관계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고, 둘째는 ‘자운’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셋째는 ‘중성부용초성’을 ‘단선적인’ 음운 인식의 결과로 이해하고, ‘팔중성가족용’을 ‘비단선적인’ 음운 인식의 결과로 이해할 경우, 생성음운론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비단선적’(non-linear)이라는 말의 개념과 발표자의 ‘비단선적’이라는 말의 개념이 서로 다른 문제가 생긴다. 아래에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논의하기로 한다.

2.1. '중성부용초성'과 '팔중성기죽용'의 음운론적인 인식과 관련한 문제

2.1.1. '중성부용초성'의 음운론적인 인식에 대한 해석 문제

'중성부용초성'이란 말은 물론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문에 실려 있지만, 그 개념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해례본의 제자해 뒷부분에 실려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체제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해례'이기 때문이다. 제자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성부용초성'의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곧 음절은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른바 초성, 중성, 종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음절을 이렇게 세 요소로 분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성과 중성이 다 같이 오늘날의 '닿소리'에 해당하는, 같은 성질의 소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들의 한 음절 안에서의 구실은 서로 달라, 초성은 '첫소리'로서의 구실을 하고, 중성은 '끝소리'로서의 구실을 한다. 그리고 또 초·중성은 같은 '닿소리'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갈음' [交替]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초성은 중성으로, 중성은 다시 초성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성은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초성을 다시 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의 끝 부분에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다. 아래에서 그것들을 차례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먼저 집현전 학자들이 초성과 중성이 다 같이 '닿소리'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2) 초성을 중성에 대립시켜 말하면, 음양(陰陽)은 하늘의 도(道)이고, 강유(剛柔)는 땅의 도이다. 중성이란 하나가 심(深)이면 하나는 천(淺)이고, 하나가 합(闔)이면 하나는 벽(關)이니, 이는 음양이 나뉘어서 오행의 기운이 갖추어진 것이니, 하늘의 작용이다. 초성은 어떤 것은 허(虛)하고, 어떤 것은 실(實)하며, 어떤 것은 드날리고[揚], 어떤 것은 걸리며[滯], 어떤 것은 무겁거나[重] 가벼우니[輕], 이것은 강유가 드러나서 오행의 바탕[質]이 이루어진 것이니, 땅의 공이다. 중성이 심천과 합벽으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과 청탁으로 뒤에서 화답하여, 처음[初]도 되고, 끝[終]도 되니, 또한 만물

이 땅에서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2)에서는, 먼저 초성과 중성이 가지고 있는 성운학적 자질들을 기술한 뒤에, 그것들을 다시 성리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초성과 중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있다. 곧 초성은 ‘허, 실, 양, 체, 중, 경’ 따위의 성운학적 자질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땅의 도인 ‘강유’에 견주어진다. 중성은 ‘심, 천, 합, 벽’ 따위의 성운학적 자질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늘의 도인 ‘음양’에 견주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초성을 중성과만 대립시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필 경우에, 그 초성은 음절의 ‘첫소리’로서의 ‘초성’이 아니라, ‘홀소리’에 대립하는 ‘닿소리’로서의 ‘초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2)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성’은 음절의 ‘처음’도 될 수 있고 음절의 ‘끝’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초성이 ‘닿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데 지나지 않는다. 곧 “중성이 심천과 합벽으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과 청탁으로 뒤에서 화답하여, 처음[初]도 되고, 끝[終]도 되니, 또한 만물이 땅에서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편찬한 이들은, ‘중성’에 대립하는 ‘초성’, 곧 ‘홀소리’에 대립하는 ‘닿소리’뿐만 아니라, 한 음절을 구성하는 세 소리, 곧 초성·중성·종성의 기능의 차이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해례본의 제자해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초성·중성·종성이 합해서 이루어진 글자를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역시 동(動)과 정(靜)이 서로 뿌리가 되고, 음과 양이 사귀어 변하는 뜻이 있다. 동이란 하늘이요, 정이란 땅이며, 동과 정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대개 오행이 하늘에 있어서는 신(神)의 운행이요, 땅에 있어서는 바탕[質]의 이름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 예, 신, 의, 지가 신의 운행이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 바탕의 이름이다. 초성에는 발동(發動)의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요 중성에는 그치고 정하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중성은 초성의 남을 이어받아 종성의 이름을 이어 주니 사람의 일이다. 대개 자운(字韻)의 중심은 중성에 있어서, 초성과 종성을 합하여 음(音)을 이루니, 이것은 또한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성해도, 그 조정[裁成]과 기움[輔相]은 반드시 사람에게 힘입는 것과 같다.

(3)에서는, 초성과 중성 그리고 중성의 한 음절 안에서의 기능의 차이를, 한편으로는 성리학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성운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곧 초성을 “하늘”, 중성을 “땅”, 그리고 중성을 “사람”에 견준 것 따위는 초·중·중성의 다름을 성리학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다시 초성을 “발동(發動)”, 중성을 “그치고 정함(止定)”, 그리고 중성을 “초성의 남을 이어받아(承初之生), 중성의 이룸을 이어 줌(接終之成)” 등으로 표현한 것은 초·중·중성의 한 음절 안에서의 기능 차이를 성운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해례본의 편찬자들은 중성과 대립하는 ‘초성’의 성질과 중성 및 중성과 대립하는 ‘초성’의 기능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곧 중성과 대립하는 초성은 ‘달소리’이고, 중성 및 중성과 대립하는 초성은 음절의 ‘첫소리’이다.

또 해례본을 편찬한 집현전 학자들은 중성에 초성을 다시 쓰는 근거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자해의 다음 부분이 그것이다.

- (4) 중성에 초성을 다시 쓰는 까닭은, 동(動)해서 양(陽)인 것도 건(乾)이고, 정(靜)해서 음(陰)인 것도 역시 건(乾)이므로, 건(乾)이 비록 음양으로 나뉘어도 주재(主宰)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 으뜸되는 기원(元)이 두루 흘러서 막힘이 없고, 사시(四時)의 운행이 순환해서 끝이 없는 까닭에, 정(貞)이 다시 원(元)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니, 초성이 다시 중성이 되고, 중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것도 또한 이 뜻이다.

(4)에서는 초성이 중성이 되고, 또 중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까닭을 『주역』 건괘의 ‘원형이정(元亨利貞)과 사시(四時)의 ‘춘하추동’의 순환 원리에서 찾고 있다. 곧 초성이 중성이 되고, 중성이 다시 초성이 되기 때문에, 중성은 초성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위에서 살핀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곧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중성부용초성’이란, 결국 초성과 중성은 다 같이 ‘달소리’인데, 다만 한

음절 안에서의 기능만 ‘첫소리’와 ‘끝소리’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글자를 만들에 있어서도 초·중성의 동질성을 근거로, 중성은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초성을 다시 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항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팔중성가죽용’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1.2. ‘팔중성가죽용’의 음운론적인 인식에 대한 해석 문제

‘팔중성가죽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훈민정음』 해례본 중성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성(聲)에는 완급(緩急)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평성, 상성, 거성 등의 중성은 입성의 촉급함과 같지 않다. 불청불탁의 글자들은 그 소리가 세지[厲] 않기 때문에, 중성에 쓰면, 평성, 상성, 거성에 마땅하고, 전청, 차청, 전탁의 글자들은 그 소리가 세기 때문에, 중성에 쓰면, 입성에 마땅하다. 그러므로 「ㅇ, ㄴ, ㄹ, ㄷ, ㄹ, ㄷ, ㄹ」 따위의 여섯 글자는 평성, 상성, 거성 등의 중성이 되고, 그 나머지 모두는 입성의 중성이 된다. 그러나 「ㄱ, ㅎ, ㄷ, ㄴ, ㅂ, ㅅ, ㄹ」 등의 여덟 글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다. 마치 「빛꽃」이 「梨花」가 되고, 「엿의갓」이 「狐皮」가 되지만, 그러나 「ㅅ」글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ㅅ」글자만 쓰는 것과 같다. 또 「ㅇ」글자는 소리가 묵고 비기 때문에, 중성에 쓰지 않더라도, 중성만으로 음(音)을 이룰 수 있다.

(5)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곧 초성 23글자 가운데 「ㅇ, ㄴ, ㄹ, ㄷ, ㄹ, ㄷ, ㄹ」 등의 불청불탁의 글자들은, 그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평성, 상성, 거성의 중성에 알맞고, 그 나머지 전청, 차청, 전탁의 글자들은 모두, 그 소리가 세므로, 입성의 중성에 알맞다. 따라서 초성 23글자는 모두 중성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ㄱ, ㅎ, ㄷ, ㄴ, ㅂ, ㅅ, ㄹ」 여덟 글자만 가지고도 중성을 다 적을 수 있다. 따라서 「빛꽃」과 「엿의갓」을 「빛꽃」과 「엿의갓」 따위로 적을 수 있다. 위의 우리말 표기 방법 가운데, 앞의 것은 오늘날의 형태소 적기법에 해당하고, 뒤의 것은 음소 적기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빛꽃」

과 「열의갓」의 표기법을 ‘중성부용초성’이란 구절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중성부용초성’을 곧 ‘형태소 적기법’의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성부용초성’이란 말 그대로 중성을 적는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초성을 다시 쓴다는 사실을 밝힌 것일 뿐이다. 따라서 「빛곳」과 「열의갓」 같은 표기도 그것을 따랐을 뿐이다. 물론 이와 같은 표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에 앞서, 반드시 그 형태소의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해례본 중성해의 결(訣) 부분에 나오는 (6)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곧 초성은 다 중성으로 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여덟 글자만 가지고도 중성을 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6) 초성이 중성이 되는 이치는 참으로 그러한데, (初作終聲理固然)
다만 여덟 글자만 가지고 써도 막히지 않네. (只將八字用不窮)

이와 같이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중성’과 대립하는 ‘초성’과 ‘중성 및 중성’과 구별되는 ‘초성’의 특징과 그 기능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중성’은 그것만을 위해 따로 글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그것을 그들은 ‘중성부용초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성’의 자리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소리는 여덟 개뿐인데, 그것이 「ㄱ, ㅎ, ㄷ, ㄴ, ㅂ, ㅍ, ㅅ, ㄹ」 등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그것을 그들은 ‘팔중성가족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민정음』 해례본 본문의 ‘중성부용초성’을 “초성=중성”이라고 이해하고, 해례본 제자해의 ‘팔중성가족용’을 “초성≠중성”이라고 이해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2. ‘자운’의 개념 이해의 문제

발표자는 초성과 중성이 각각 음절의 첫소리와 끝소리로 쓰일 경우의 차이

를 설명하기 위하여,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 국어의 음절 구조를 계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구조를 근거로 하여, ‘자음(字音)’과 ‘자운(字韻)’의 층위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곧 자음이란 한자의 음(音) 곧 음절에 해당하고, 자운은 한자의 운(韻) 곧 중국어 음절의 한 구성 성분인, ‘성’에 대립하는 ‘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자운이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자음과 자운의 개념도 기존의 개념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곧 발표자는 자음은 초성과 자운으로 이루어지고, 자음의 한 성분인 자운은 다시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과 『홍무정운역훈』 따위에서는 자운의 뜻을 자음과 구별하여, 다른 뜻으로 쓴 적은 없는 것 같다. (7)의 예문들이 그것이다.

- (7) ㄱ. 대개 ‘자운’의 요점은 중성에 있어서, 초·중성이 합하여 음을 이룬다.
(제자해)
- ㄴ. 중성은 ‘자운’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초·중성을 합하여 음을 이룬다.
(중성해)
- ㄷ. 중성은 초·중성을 이어서 ‘자운’을 이룬다.(중성해)
- ㄹ. ‘자운’은 곧 청탁이 가려질 수 있으며, 노래[樂歌]는 율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정인지서)
- ㅁ. 우리 세종 장헌대왕께서는 성운학 연구에 뜻을 두시고, 그 깊은 속까지 알고 닦으셔서, 훈민정음 약간 자를 창제하시니, 사방 만물의 소리를 전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우리 나라의 선비들도 비로소 사성(四聲)과 칠음(七音)이 저절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가 없어서, 특별히 ‘자운’만이 아님을 알았다.(홍무정운역훈)

(7)의 예문에 따르면, 자운은 자음과 같은 개념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음절’에 대응되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러한 사실은 특히 (7ㄱ, ㄴ, ㄷ)의 경우에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그 당시 국어의 음절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국어나 영어처럼, 그것을 계층적으로 파악한 적이 없어 보인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중국어 ‘자음’(字音)의 일차적인 구성 성분인 ‘성’(聲)과 ‘운’(韻)의 두 가

지 요소 가운데 ‘운’에 대응하는 요소와, 또 영어 음절의 일차적인 구성 성분인 ‘onset’와 ‘core’ 또는 ‘rhyme’의 두 가지 요소 가운데, ‘core’에 대응하는 요소 따위를 따로 파악한 것 같지는 않다.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국어의 음절 구조를 초성과 중성, 그리고 중성이 모두 같은 계층에 함께 자리하는, ‘비계층적’ 구조로 파악했지, 그것을 ‘계층적’ 구조로는 파악하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국어의 음절 구조 가운데는 ‘운’과 ‘core’에 대응하는 요소가 없을 수 밖에 없고, 또 자운의 개념도 그것들에 대응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운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몇 분이 논의한 적이 있다. 유창균(1977:53)에서는 (7ㄱ)에 나타나 있는 ‘자운’이란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고 있다. 곧 “한자(漢字)의 음(音)을 말한다. 한자의 음은 성(聲)과 운(韻)의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거니와, 성운학에서는 운을 대표로 삼는다. 따라서 자운(字韻)이라는 말은 자음(字音)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또 유창균(1977:65)에서는 (7ㄴ)에 나타나 있는 ‘자운’에 대해서도 주석을 달고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같다. 곧 자운이란 “한자음이란 뜻이다. 한자의 음을 성과 운의 둘로 구별한다는 말은 앞에서 말했거니와, 보통 중성은 운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조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자음(字音)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운(字韻)이라고 해서 중성의 특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두 경우 모두 ‘자운’의 개념을 ‘자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별히 자운이라고 한 까닭은, 한자음의 경우, ‘운(韻)이 자음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강신항(1987:76)에서는 (7ㄷ)의 자운을 “하나의 음절로 된 자음(字音)”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밖에 남풍현(1978:20)에서는 (7ㄷ)의 자운을 “한자음(漢字音)”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임용기(1991:68-9)에서는 “자운이란 중국의 작시 위주의 운서에서 거두어 들이고 있는 모든 한자를 그 운에 따라 일정한 운목 아래 배열할 때, 그 아래 배열된 자류(字類)들의 음(音)을 가리킨다.”라고 한 적이 있다. 모두 자운을 자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자운’을 ‘성’에 대립하는 ‘운’과 같은 뜻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다. 박병채(1974:411)이 그러하다. 곧 “현전하는 『홍무정운역훈』은 전16권 8책 중 불행히도 제1책(권제1, 2)이 낙질된 7책만이 보존되어 있다. 형식은 원전인 『홍무정운』의 체제와 내용 및 순서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동국정운』과 동일한 형식으로 원전의 자운(字韻) 머리에 자모(字母)를 분입하고, 한글 역음을 첨기하였으며, 다시 자운(字韻)에 따라서는 원전의 반절 하단에 속음과 발음법 설명을 부기하였다. 따라서 『홍무정운역훈』은 원전인 『홍무정운』을 개찬한 것이 아니라, 역훈상 필요한 사항만을 일정한 자리에 삽입하여, 판을 다시 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운”이란 『홍무정운역훈』의 ‘운목’을 가리킨다. 이 때의 자운의 개념은 한자의 ‘운’을 근거로 한 것이다. 『홍무정운역훈』 권제3의 「八眞」의 경우, 그 첫머리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곧 “八眞, 照 진 眞... 眞...”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八眞」의 「眞」은 ‘운목’, 「照」는 ‘성모’, 「진」은 그 ‘한글 역음’인데, 이 가운데 ‘운목’을 ‘자운’으로, ‘성모’를 ‘자모’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는 ‘자운’을 ‘자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운(韻)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7)의 예문 및 그것에 근거한 유창균(1977)의 논의 등과 그리고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절 구조에 대한 비계층적 인식 따위에 근거하여, 자운의 개념을 자음, 곧 음절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3. ‘단선적’ 음운 인식과 ‘비단선적’ 음운 인식에 관련한 문제

발표자는 ‘중성부용초성’과 ‘팔중성가족용’의 음운 인식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 (8) 음소가 변별적 자질의 집합이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의 SPE(1968)에서 정설로 굳어진 것이며, 변별적 자질의 계층적 이해는 비단선음운론(non-linear phonology)이 등장한 이후의 일이다. 특히 『훈민정음』 예의의 ‘중성부용초성’이 단선적인 음운 인식이라면, ‘팔중성가족용’에서의 중성 인식은 음절

초 자음(onset)와 음절 말 자음(coda)를 구별하여 인식한 것으로 비단선적인 음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8)과 같은 ‘단선적’ 음운 인식 및 ‘비단선적’ 음운 인식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자운의 개념을 살피는 자리에서 상당 부분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국어의 음절 구조 인식과 관련하여, 그것을 계층적으로 인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계층적’이란 개념을 ‘비단선적’이란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단선적’이란 말은 ‘분절음’의 층위와 성조 또는 강세 따위의 ‘자립분절음’의 층위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그 층위가 각각 ‘자립적’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나 있는 음운 이론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 개념들이 비록 중국의 성운학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그것이 현대 음운 이론에 조명을 받아, 반드시 그 과학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의 이론은 그 자체의 논리로써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3. 국어학의 연구 태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각 나라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말과 글자에 대하여 각각 서로 다른 나름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말과 글자에 대한 연구 대상 및 방법 역시,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자못 서로 다를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경우, 일찍부터 고유한 말은 있었지만 그것을 적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당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고유한 글자를 갖는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앞선이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역사의 인식을 『훈민정

음』 해례본의 정인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옛 사람들이 소리를 따라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이치와 통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삼재의 도를 실었으니, 뒷사람들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다르면, 소릿기운 또한 따라서 달라진다. 대개 외국 말은 그 소리는 있지만, 그것을 적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어, 그 쓰는 데 통하게 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마치 등근 구멍에 모가 난 막대기를 끼우는 것과 같아서, 서로 잘 맞지 않는다. 형편이 이러하니, 어찌 서로 통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요컨대 각각 그 처하고 있는 형편에 따라 편의하게 해야지, 억지로 같게 해서 안 된다. 우리 나라는 예악과 문장이 중국과 나란히 비길 만하지만, 다만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문을 배우는 사람은 그 뜻의 통하기 어려움을 걱정하고, 옥(獄)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병통으로 여긴다.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 이두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쓰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어 쓴 것이어서, 어떤 것은 꺾꺾하고 어떤 것은 아주 딱히, 비루(鄙陋)하기가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이르러서는 그 만의 하나도 통하기 어렵다. 계해년 겨울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새로 만드시고, 간략하게 예의(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하여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9)의 정인지서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말과 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둘째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고유한 글자가 없어, 남의 말을 적는 글자를 빌어다가 우리말을 적을 경우, 그것을 빌어 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 각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따위를 그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과 글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들은 전통적인 중국의 ‘풍토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곧 자연의 언어가 있으면, 그것에 맞는 자연의 글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풍토가 다르면, 그 소릿기운이 다르게 되고, 소릿기운이 다르면, 그 말 또한 달라져서, 결국은 그것을 적는 글자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적는 글자를 빌어다가 자기 말을 적게 되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글자를 빌어다가 우리말을 적을 경우, 두 가지의 방법이 가능한데, 한 가지는 중국말을 적는 한문을 배워, 그것으로 우리말을 적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다가 우리말을 적는 글자를 만들어, 우리말을 적는 방법이다. 이른바 고유명사 표기, 이두, 구결, 향찰 따위의 차자표기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글자를 빌어다가 우리말을 적는 두 가지 방법, 곧 ‘한문’과 ‘이두’ 가운데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다. (9)에서 “한문을 배우는 사람은 그 뜻의 통하기 어려움을 걱정하고, 옥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병통으로 여긴다.”라고 한 것은 한문 사용의 어려움을 밝힌 것이고, 또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 이두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관부와 민간에서 쓰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어 쓴 것이어서, 어떤 것은 꺾꺾하고 어떤 것은 아주 막혀, 비루하기가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이르러서는 그 만의 하나도 통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은 이두의 글자로서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의 창제는 당시 교착 상태에 빠진 우리의 글자생활의 현실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의 창제는 당시의 글자생활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와 같은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동안 우리는 ‘뜻글자’인 한자와 ‘음절글자’인 이두를 써서 우리말을 적었지만, 그 글자들을 가지고는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없었다.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결과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새로 만드는 글자는 ‘음소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매우 체계적인 음소글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소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해당 언어의 말소리를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음운의 이론과 방법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이 마련한 음운 이론과 방법은 이와 같은 배

경에서 생겨난 것인데, 그것은 매우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말 소리의 과학적인 연구의 출발점을 여기에 둔 것인데, 그것은 그것이 태어난 독특한 배경 때문에 고유성과 독자성을 갖게 된다. 앞에서 넓은 의미의 국어학 연구의 출발점을 이 때로 잡은 것도 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어학이 그 나름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갖게된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국어학 연구가 고유성과 독자성을 갖게 된 배경을 살피기 위하여, 우리는 또 다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표기법과 국어 사전의 편찬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글자체계가 마련되면, 바로 그것으로 해당 언어를 제대로 적을 수 있는 표기법을 마련해야 한다. 표기법과 관련해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종성해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기와 함께 자세한 설명이 드러나 있다. 앞에서 인용한 (5)가 바로 그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표기법은 ‘팔종성기족용’에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음소적기법’에 해당한다. 『석보상절』, 『능엄경언해』 등 15세기 중엽에 간행된 각종 언해서 및 그 이후 16세기까지 간행된 언해서들에는 그것이 매우 잘 지켜져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표기법이 문란해지기 시작하여, 개화기에 오면, 그 혼란이 극에 다다른다. 1907년 7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설치되었던 국문연구소의 국문연구의정안(1909)과 1908년에 세워진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등은 바뀐 글자 체계 및 문란한 국어 표기법을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국어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의한 끝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말의 음운, 문법,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전음학』(1908), 『국어문법』(1910) 『말의 소리』(1914), 김두봉 선생의 『조선어문법』(1916),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첫째매, 1929) 등은 그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것은 15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우리말 소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말의 문법 및 어휘의 체계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국어 연구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여기에 이르게 되면, 국어학 연구의 틀은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펴낸 뒤, 곧이어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과 『외래어표기법』(1940)을 펴내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마련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일련의 업적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위한 국어 연구가 뒤따랐기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시기의 국어 연구 업적들은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은책, 1937)으로 집대성 된다. 이와 같이 우리말 연구의 업적들이 쌓이고, 글자체계 및 표기법이 마련됨으로써, 1929년 10월에 발간한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의 사전 편찬 사업도 결실을 맺게 되는데, 1942년 3월에 『큰사전』 원고 일부가 조판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큰사전』 6권이 완간된 것은 1957년이다. 국어 사전에는 그 때까지 연구된 국어 연구의 결과가 다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어 연구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그것을 펴낼 수 없음을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국어 사전을 편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어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국어학 연구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고유한 글자를 만드는 데서 비롯하여,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고 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데서 그들이 잡힌 것인데, 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어, 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한 국어학자들의 노력에서 이루어진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들의 국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자생적(自生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닐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5세기 중엽에 우리말 소리의 체계를 연구하여 고유한 글자를 새로 만들거나,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의 음운은 물론, 문법과 어휘의 체계까지 연구하여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고, 나아가 국어 사전까지 편찬함에 있어서, 외국의 언어 연구의 방법을 전혀 도외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 들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했던 것이다. 15세기 중엽에 중국에서 성운학과 성리학을 받아들인 것이 그러하고,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통하여 서구의 언어학을 받아들인 것이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일 따름이다. 이처럼 국어학 연구의 오랜 전통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

데, 적어도 오늘의 국어학 연구 태도 또한 이러한 전통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근래 생성문법을 받아들인 이후, 국어학 연구의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는 태도, 이를테면, 국어학의 연구 방법과 이론은 물론, 그 과제조차 그들의 연구에서 가져오는 경우 따위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분명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남풍현. “훈민정음과 차자표기법과의 관계”, 『국문학논집』 9,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978.

박병채. “『홍무정운역훈』 해제”, 『홍무정운역훈』(영인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유창균. 『훈민정음』, 형설출판사, 1977.

임용기. “『훈민정음』의 삼분법 형성 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Abstract]

Reflections on the Study of national Language in Korea

Yong-Ki Lim
(Yonsei University)

The issues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attitude toward the study of national language may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depending on the national or racial characteristics. The problem domains and the methodologies dealing with them may vary accordingly.

Ever since the Korean language was equipped with a writing system in the year of 1443 through King Sejong's long-cherished desire, investigations have been constantly made into the real nature of the language itself in pursuit of a better method for representing the spoken language in written form. This is how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began to take shape.

Among such investigations are *Hunmin-jeong-eum* (the Korean script: 1446) compiled by Jiphyon-jon, the royal office of scholarly researches, *Doongguk-jeonghun-yokhun* (the orthodox script of Korean: 1448), *Hongmu-jeonghun-yeokhun* (interlinear gloss for the Chinese script of the Ming Dynasty: 1455), *An Orthodox Approach to Written Korean* (1909) by the institute of the National Script, *The Standardized Spelling System* (1933) by Chosun Language Society, *An Authorized Dictionary of Standard Korean* (1936), *How to Write Borrowed Words* (1940), and *A Grand dictionary of Korea* (1947-57). Chu Shi-Gyung's *Phonetics of the Korean Script* (1908), *Korean Grammar* (1910), and *Sound Patterns of Korean* (1914) were all written in this vein; so was Choi Hyun-Bae's *Uri-mal-bon* (the rudiments of Korean Grammar: 1929/1937).

All these achievements in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are the end-products of the constant endeavor to solve the issues related to the spoken and written forms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is is how the uniqueness and autonomy of the language study in Korea have been established. It should be borne in mind, however, that, in seek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Korean linguistic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On the contrary, they have been very active in accommodating such results. While they have set up their problem domains on the basis of the Korean language, they have been progressively open-minded in looking for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at hand.